

■ 센터 소장 인사말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하여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입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과 관련된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 2019년의 첫 세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정상 국가가 되기에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있어 그 최종 목적지는 분명한 것이기에, 한걸음씩 이 길을 걷고 또 걸으면 결국은 통일에 이를 것이라 믿습니다.



언론에도 몇 차례 나왔던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07년부터 평양에 심장전문 병원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 년 동안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로 인하여 그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 제재가 완화되면 이 병원의 건축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연세의료원이 이 병원에 대하여 어떻게 협력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통일보건의료센터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활동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 많은 교수님들 및, 의료원의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수록, 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 및 한반도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언제든지 통일 보건의료센터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열려 있는 자리가 통일보건의료 세미나입니다.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매 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리는 이 세미나를 통해 향후 연세의료원이 통일 및 남북협력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모아지고, 그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지만, 올 해에는 더욱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해부터 국제의료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원의 국제개발(ODA)센터와 의과대학 인문사회 의학교실 통일국제의료 division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국제의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그 내용들은 북한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매 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12시 20분-1시 20분까지 있는 이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주제는 본 뉴스레터 뒤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통일보건의료센터 뉴스레터의 여름호 (7월) 가 나올 때까지는 한반도에 더 많은 좋은 일들과 역사의 진전이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 올림

신임운영위원 - 최준용 감염내과학교실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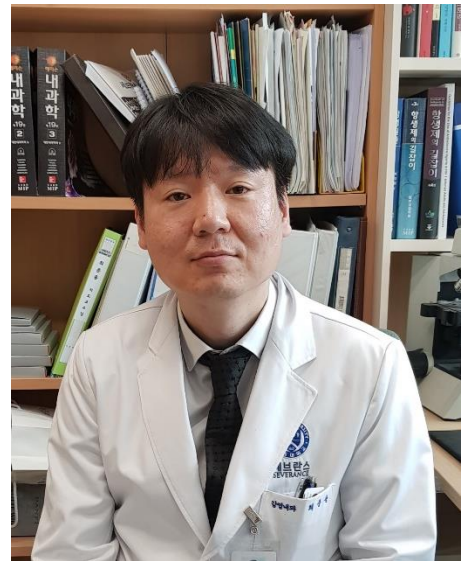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이슈들 중에서도 감염병 분야에 대한 교류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32%가 감염병을 앓고 있고, 북한의 의료 상황 데이터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북한의 의료수준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아프리카와 베트남의 낙후된 지역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연구활동 경험이 있는 최준용 감염내과학교실 교수를 신임운영위원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1. 어떻게 북한,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감염내과 의사인데, ODA(공적개발원조)사업들도 그렇고 북한 보건의료에서도 그렇고 감염병이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감염내과의사로서 감염병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사업들과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북한은 말라리아, 결핵, 성병 등 여러가지 감염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남북보건협력에 대해서 남북한 정부가 논의할 때 가장 먼저 감염병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영향들 덕분에 감염내과 전문가로서 통일보건의료 분야에서 해야할 역할들이 있겠다라는 생각 해왔어요.



2. 연구원으로서 아프리카(KOICA)나 베트남(연세의료원) ODA 사업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 보 때 북한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의 감염병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 공부하고 싶었는데 관련 정보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노력 끝에 결핵과 말라리아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얻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정확히 떨어지는 데이터를 보니, WHO에 보고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신임운영위원 - 최준용 감염내과학교실 교수

그래서 북한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염병 관련된 역학자료들을 북한의 감염전문가와 같이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감염병 감시, 진단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 통일보건의료센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활동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북한의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정부의 여러 절차를 통해야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남북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학술적인 세미나가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의 의과대학 전문가들이 우리 세브란스로 오기도 하고, 우리가 북한의 의과대학으로 가기도 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남북간의 신뢰구축단계에서 이런 형태의 학술적 교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그리고 본교의 약학대학까지 있으니, 학술적인 측면에서 교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

통일보건의료센터 의과대학 특성화 과정 참여 학생 인터뷰 -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조다울 학생



통일, 북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회들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2년, 생물학과 1학년 신앙 공동체에서였다. 당시 나는 연세기독교학생 연합 12학번 기도 모임, 선교단체, 교회의 청년부 모임에 매주 열심히 나갔었다. 남북 관계는 경색되어 있었던 때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은 기도모임 때마다 북한 땅과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이들을 보며 과연 이들은 왜 북한과 통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증이 생겼고,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의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전우택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북한과 통일, 주로 통일보건의료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통일보건의료센터 강의와 심포지움에 참석해보기도 하였다. 의대에 들어오기 전 막연하게만 생각하였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여준 기회들이었다. 하지만 1회성 강의와 행사로만은 자세히 알아보기 어려웠기에 특성화 선택 과정을 통해 통일보건의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는 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었다.

특성화 과정을 통한 경험 1.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생생한 현장

특성화 선택과정을 통해 첫 번째로 통일보건의료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서울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실, 공공의료팀, 진료과,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이들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같은 일에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는데 있어 각자의 의견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 볼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만성 질환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읽고 연구 데이터를 직접 정리하며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통일보건의료센터 의과대학 특성화 과정 참여 학생 인터뷰 -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조다울 학생

특성화 과정을 통한 경험 2. 인문사회의학 분야

두 번째로 통일보건의료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GEEF(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9와 3.1운동과 세브란스 심포지움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특성화 선택 과정이 아니었다면 배우지 못했을 다양한 인문사회의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



특성화 과정을 통한 경험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돕는 사업 기획 참여

세 번째로 실제 사업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실습 과정 중 북한이탈주민 전문 지원자 (care-giver) 역량 강화와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회의에 매주 참여하였다. 실제 사업이 제안되는 초기 단계부터 사업 계획서가 완성되는 단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계획한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도 볼 수 있다면 더욱 뜻 깊을 것 같다.

특성화 과정을 통한 경험 4.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네 번째로 트라우마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남북한의 갈등을 넘어 용서와 화해, 평화로운 통일로 가는 길에서 넘어야 할 것도 남북한의 사회적 트라우마라 할 수 있다. 트라우마에 관한 두 개의 책을 읽으며 생각보다 트라우마는 사회에 만연하여 있으며 이를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의 특성화 선택 과정이었다. 이번에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이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가며 발전시켜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 싶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의과대학 특성화 과정 참여 학생 기고

- 의과대학 본과 4학년 김민균 학생

<통일보건>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6.25전쟁 이후 68년간 적국으로 지내온 동시에 한민족으로 통일이 올 날을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사이였다. 두 나라는 지난 68년간 때때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 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 의심하는 지속적인 시선은 대화를 왜곡시키고 결국 귀를 모두 닫게 만들었다.

2018년, 이번엔 다르다고 느꼈다. 판문점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날 때,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만날 때 나는 형식뿐인 회담을 넘어서는 분위기를 느꼈다. 즉, 한반도 핵



이슈의 종결과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 대해 세 나라가 이전까지 보지 못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2018년이 시작된 지 불과 6개월 사이에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는 전쟁의 두려움이란 땅에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러한 결과가 한반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궁금했다.

그리고 의대 내에서는 필수 교육 과정인 SMLP 시간에서 전우택 교수님의 강의와 토론 시간을 통해 의료인이 통일 시대에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고,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의과대학 학생으로써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특성화 기간으로 주어진 3개월 동안 통일보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특성화 경험

특성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중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만한 2가지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다. 첫째로 대한민국 내 위치한 '트라우마 치유기관'에 방문하여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역사에 기록된 사회적 사건에서부터 개인이 경험했던 사건까지 사건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한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 얻은 '트라우마'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있었다.

통일보건의료센터 의과대학 특성화 과정 참여 학생 기고

- 의과대학 본과 4학년 김민균 학생

“비보호 결정자”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탈북자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기관은 ‘비보호 결정자’를 지원하는 점이 뜻 깊었다. ‘비보호 결정자’란 국내 탈북민 정착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으로 테러리스트, 김일성 친인척, 살인이나 마약과 같은 중범죄 이력이 있는 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 등이 있다. 이 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비보호 결정자’란 개념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기관 운영비용은 모두 후원으로 지원받고 있고, 상담사들은 이 기관에서의 경력이 상담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전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점이였다.

우리 사회 내의 북한이탈 주민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언론과 정치에서 매일 이슈화되는 ‘북한’이슈의 영향력이 수많은 ‘비보호 결정자’들의 문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이슈를 ‘이익집단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해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북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6.25, 핵무기, 한반도 평화’라는 거시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탈북민의 지원, 비보호 결정자들의 열악한 환경, 탈북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의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미시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없이 생활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민족적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국가폭력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던 광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의 경험은 40여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치유되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좀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5.18 당시 헬기 사건과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과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인 이순자씨의 ‘내 남편(전두환)은 민주화의 아버지’ 라는 발언으로 치유의 과정에 있던 5.18 피해자들이 2차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통일보건의료센터 의과대학 특성화 과정 참여 학생 기고

- 의과대학 본과 4학년 김민균 학생

광주트라우마센터 방문을 위해 찾았던 광주의 모습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5.18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한 한이 서려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한 도시 전체가 여전히 한의 정서를 품고 있는 이유는 5.18 민주화운동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인정할 정도의 가해자들의 처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문제 분석과 예방책 마련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사실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살펴볼 수 있다. 구한말 국권침탈부터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 당시 반민특위 해체, 군사독재,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수많은 사건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방치되고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나라가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했다. 내 생각으로는 만약 대한민국이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어 간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근간인 국민은 더 이상 나라와 사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뿌리부터 썩어가는 '대한민국'이란 나무가 더 이상 성장동력을 얻지 못해 지난 시절의 화려한 추억만을 기억하는 말라비틀어진 나무가 되어버릴까 걱정된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느낀 탈북민들의 트라우마

둘째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 상담소'에서 실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바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위에서 이야기 했던 치유되지 못한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트라우마 뿐 아니라 북녘에서 사선을 넘어 자유의 땅으로 넘어 온 탈북민들에게도 트라우마는 존재했다. 탈북민들과의 가감 없는 대화를 통해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단지 북한에서 겪은 events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겪은 events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누군가의 가해자로, 누군가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 했다.

통일보건의료센터 의과대학 특성화 과정 참여 학생 기고

- 의과대학 본과 4학년 김민균 학생

그들은 대한민국의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이며 한반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해 6.25의 가해자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구성원들에게 소외된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체험 이후 나는 탈북민들을 더 이상 누군가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만들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대한민국 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의 또 하나의 퍼즐 조각 "탈북민"

이번 특성화 과정을 통해 나의 인생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전까지 만들고 싶어 했던 '건강한 공동체'라는 청사진에 탈북민을 얹혀놓으니 그동안 맞추지 못한 퍼즐을 하나씩 다시 맞춰가는 기분이었다. 앞으로 특성화 실습 이후에도 이러한 인생의 큰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에 필요한 의학공부 과정을 최선을 다해 이행할 생각이다.

그리고 전우택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 "나만의 고유한 Career path는 큰일에서 시작되기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비록 학생이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목표를 이루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맛보고 느끼며 인생의 걸음걸음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확신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특성화 과정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전우택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

제 37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 “2014 난징에서 2018 평양까지 서른개의 이벤트”

- 김일출 세계태권도연맹 총괄 사무차장

□ 일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ABMRC 1층 세미나실

□ 요약 : 2014년 이후 열린 서른 개의 태권도 이벤트들과 ‘한반도 건강공동체’ 건설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



연자 소개 김일출 세계태권도연맹 총괄 사무차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경력

현) 코리아타임스 의료고문

전) 메디페이스(현, 인피니트 헬스케어) 대표이사

전) 매일경제 메디컬 총괄팀장

전) 인천성민종합병원 경영원장

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겸임교수



강연 요약

남북관계 속의 태권도

정권이 바뀌며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의 기류가 만들어지고 평창동계올림픽, 판문점 정상 회담이 이뤄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 밑에서 이루어진 수 많은 작업들의 산물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을 통해 태권도는 남한과 북한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작업들에 기여해 왔다. 남한과 북한 선수들이 합동 시범, 남북간 선수단 초청 등의 이벤트들을 통해 북의 파트너와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며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첫 자리에서 역할 해 왔다.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는 신뢰 관계의 형성과 유지

남과 북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과 경색이 반복되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것 이다. 특히 북한을 북측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주목해야 하며, 남북의 협력을 통해 얻는 공동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의 체제, 제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을 품고 북과 대화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들이 남북협력을 위해 준비할 것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유기적으로 민과 관, 대학과 기업이 하나로 연계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보건의료 측면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해타산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협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통일보건의료세미나 안내

통일보건의료세미나는 매 월 넷째 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세미나 주제와 연자, 장소에 대한 정보는 매 월 교직원 e-mail과 포스터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수	일시(예정)	장소(예정)
제 38차	4.30(화) 저녁 6시	종합관6층 교수회의실
제 39차	5.28(화) 저녁 6시	ABMRC 1층 세미나실
제 40차	6.25(화) 저녁 6시	의과대학 본관 1층 의대회의실

기타·광고

국제의료세미나 안내

인문사회의학교실 통일국제의료 Division과 제중원보건개발원 국제개발(ODA)센터 공동 주최 세미나입니다.

차수	일시	담당 발제자	발표 제목
제1차	3/12 (화) 12:20 ~13:20	이명근 교수 (보건대학원)	보건분야 국제 개발 사업의 소개 및 참여 방안
제2차	4/16 (화) 12:20 ~13:20	이훈상 교수 (보건대학원)	Use of Digital Health and Innovation in Global Health
제3차	5/14 (화) 12:20 ~13:20	강영애 교수 (내과학교실)	결핵 치료의 역사
제4차	6/11 (화) 12:20 ~13:20	최원규 교수 (의료선교센터)	몽골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식 의료환경과 변화
여름방학			
제5차	9/10 (화) 12:20 ~13:20	염준섭 교수 (감염내과학교실)	Global malaria situation and prospect for elimination
제6차	10/15 (화) 12:20 ~13:20	박진용 교수 (의료선교센터)	아프리카 의학교육 현황
제7차	11/12 (화) 12:20 ~13:20	윤상철 교수 (보건대학원)	UHC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 기술, 자원 그리고 역설
제8차	12/10 (화) 12:20 ~13:20	김문규 교수 (소아과학교실)	중동 난민 의료 실태

통일보건의료학회 관련 소식 - 2019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2시
장소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주제	남북보건의료 개발협력
참가 신청	향후 포스터 통해 공지 예정
문의	02-2228-0995 / ahku.office@gmail.com

